

## <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

나온 시민들 “김건희 특검!” “전쟁 반대!” 외침

尹대통령 ‘대국민 사과 쇼’에 대한 성토와 김건희 특검법 통과 요구 이어져  
이재명 당대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손 잡고 무릎 꿇릴 것’ 강조  
민주, 다음 주부터 제야당·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대응한다는 방침

대통령에 절망한 국민이 다시 광장에 모였다. 11월 9일(토) 저녁 숭례문 일대에서 개최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범국민대회에는 노동자, 촛불시민, 제정당 당원 등 윤석열 정권 심판의 의지로 하나된 20여 만 명의 시민이 광장에 모였다.(텔레민주 등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동시 시청한 국민도 10만여 명으로 추산됨) 윤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쇼’가 국민의 분노에 다시 기름을 부은 것이다.

- 범국민대회의 첫 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부터 시작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담화가 아닌 대국민 선전포고”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는 것이 민주당의 의무임을 강조했다.
- 민주당 주최로 개최된 이날 집회에는 국정농단에 분노하고 김건희 특검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야4당도 참석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조국혁신당 신장식 원내부대표 등 야4당의 당대표와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이들은 각각 김건희·윤석열 부부의 국정농단 의혹과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다.
- 숭례문에서 시청 앞까지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은 연사들이 나와 연설을 이어갈 때 마다 ‘김건희 특검 촉구’와 ‘전쟁 개입 반대’를 힘차게 외쳤다. 특히, 시민들은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김건희

국정농단 심판'에 대한 뜨거운 열망을 표출해냈다.

이날 대회의 절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연설이었다. 이재명 당대표는 연설에서 “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대책 없는 것을 넘어서서 그들은 국민과 이 나라의 미래에 관심조차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주권자들을 감시하듯 집회 장소를 제한하고 있던 경찰의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 이재명 대표는 특히, “(권력을) 사적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엉뚱한데 쓴다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스스로 국민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함께 손을 잡고 우리 앞에 무릎 꿇게 해야한다”라는 대목은 민주주의와 국정 정상화를 갈망하는 온 국민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었다.
- 민주당은 ‘김건희·윤석열-명태균 국정농단’이라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다음 주부터 제정당, 시민사회 등과 연대하며 함께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 민주당은 이에 앞서 11월 16일(토), 개혁신당을 제외한 야5당이 공동 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가 관측되는 만큼 이틀 뒤 열리는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특검을 촉구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더 뜨거워질 것이다.
- 한편, 지난주부터 돌입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천만인 서명운동’은 전국 시·도당 및 지역위원회에 설치된 천막당사(오프라인)와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온라인)를 통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1일부터 28일까지를 서명운동 집중기간으로 설정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독려에 나설 계획이다. 끝.

2024.11.9.( )

더불어  
**민주당**